

‘아시안컵 이란전 3-0 완승’ 신상우 감독 “골 결정력 보완할 것”

‘1골 1도움’ 김혜리 “첫 단추 잘 끼워 다행... 팀이 더 단단해질 것”

‘전쟁통’ 이란과의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승리한 신상우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골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1위 한국 여자대표팀은 2일 호주 골드코스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AFC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전반 최유리의 선제골과 후반 김혜리(이상 수원FC 위민)의 페널티킥 추가골, 고유진(인천 현대제철)의 썬킥이 합입어 이란(68위)을 3-0으로 이겼다.

이로써 한국은 필리핀을 1-0으로 누른 개최국 호주에 골 득실에서 앞선 A조 1위에 올랐다.

3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신 감독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골 결정력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은 경기였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골 결정력을 보완할 방법에

대해선 “시간이 짧아서 훈련보다는 비디오 미팅을 통해서 분석해야 할 것 같다. 선수들이 첫 경기라 긴장을 많이 한 탓에 결정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미팅을 통해서 다음 경기 때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표팀은 전반에 20개의 슈팅을 시도하고도 한 골밖에 성공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후반에 어린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고 전술적인 변화를 주면서 두 골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신 감독은 “상대 6명의 수비수가 진을 치고 있어서 양 윙포워드를 넓혔고, 포켓(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공략을 주문했던 게 잘 이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란전이 열린 호주 골드코스트 스타디움에는 약 2800명의 관중이 들어왔다. 다수의 교민 응원단 외에 대표팀 서포터스 붉은악마도 소수 참여해 응원을 이끌었다.

신 감독은 “교민이 많이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더 많은 득점으로 좋은 모

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아쉽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혜리는 이날 페널티킥으로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지난 2014년 A매치 데뷔골을 넣은 김혜리를 무려 12년 만에 개인 두 번째 골을 기록하며 승리에 기여했다.

김혜리는 “어떤 대회든 첫 경기 가장 어려운데 많은 득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실점하지 않고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 경기를 통해 팀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팬이 찾아와 주셔서 뛰는 내내 든든하고 힘이 됐다.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남은 경기에서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우리의 플레이를 보면서 꿈을 꾸고, 여자 축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조했다.



2일 호주 골드코스트 로비나 골드코스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1차전 대한민국과 이란의 경기, 신상우 감독이 그라운드를 응시하고 있다. 사진=KFA제공

대표팀은 오는 5일 필리핀, 8일 호주와 맞대결을 이어간다. 이번 대회는 총 12개 팀이 3개 조로 나

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후 각 조 1, 2위와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상위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에 오른다.

4강 진출팀과 8강 탈락 팀 중 플레이오프 승리팀 등 총 6개 팀이 2027 브라질 여자 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한다. /뉴스시

영암군, 제1회 조훈현배 전국 학생 바둑대회 성료

이틀 동안 전국 학생·학부모 800명 대국·응원 열기... 4부문 우승자 배출

영암군이 2/28-3/1일 영암군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1회 조훈현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가, 800여 명의 참가자와 학

부모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조훈현 국수의 업적과 도전 정신을 기리고, 학생들이 바둑으로

논리적 사고력과 집중력, 스포츠맨십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대한민국 바둑의 전설 조훈현 국수의 고향 영암에서 열린 첫 전국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이틀 동안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은 바둑판 앞에서 그동안 다져온 실력을 겨뤘

다. 그 결과 고등청소년부에서는 한국바둑고 1학년 송민경 학생이 정상에 올랐고, 중등부는 서울성서중 2학년 심효준 학생, 초등 고학년부는 서울연은초 6학년 허태웅 학생, 초등 저학년부는 다산새봄초 3학년 김정현 학생이 각각 우승했다.

참가 학생들은 각 부문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랐고, 대회장 곳곳에서는 미래 바둑 인재들이 학부모들의 응원 속에서 우정을 쌓으며 성장하는 대국을 벌였다. 영암군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바둑을 지역 대표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고, 체류형 스포츠 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기여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조훈현 국수의 고향에서 열린 첫 학생 바둑대회가 전국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뜻깊다. 꾸준한 대회로 영암을 대한민국 바둑 인재의 산실로 다져가겠다”라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윈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에선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무 운영 3년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무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2026 나주방문의 해’ 스포츠마케팅으로 체류형 관광 전환 박차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스포츠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며 방문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체육 분야를 활용한 전국 단위 홍보 활동을 강화해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 등 대규모 체류 수요를 지역 소비로 연결하는 스포츠관광 모델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열린 ‘2026 제주MBC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서 나주시 육상선수단과 체육진흥과 직원들은 ‘2026 나주방문의 해’와 ‘2026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를 홍보하는 문구와 QR코드가 담긴 티셔츠를 착용하고 10km 코스를 완주하며 전국 러너들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펼쳤다.

이어 2월 27일 영암군에서 열린 전라남도 22개 시군 체육회장단 회의에서는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인 ‘나주 1박 2식’을 도내 체육회장단 70여 명에게 집중 홍보하며 중목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 나섰다.

시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와 연계해 선수, 지도자, 심판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명소와 지역 특산물을 홍보해 스포츠 관광 모델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스포츠 대회는 선수와 지도자, 가족 등이 일정 기간 체류하며 숙박과 식사,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크다.

실제로 2025년 기준 3만 7천여 명이 나주를 방문해 약 56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

‘2026 나주방문의 해’ 맞아 전국 체육행사 연계 홍보 강화 나서 지난해 3만 7천 명 방문, 경제효과 56억 원... 올해 60억 원 기대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 등 29개 대회 유치로 스포츠관광 본격화



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3천여 명 증가한 4만여 명 방문과 약 60억 원 이상 역대 최고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오는 10월 11일 개최 예정인 ‘2026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에서는 참가자에게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음식점과 숙박업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체류 소비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평 파크골프장의 공인 구

장 인증을 추진해 전국 대회 유치에도 나설 예정이며 하반기까지 제43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제45회 전국 남녀 종합틀리스포츠대회 등 총 29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체육은 사람을 모으는 가장 강력한 콘텐츠”라며 “스포츠와 관광, 지역경제를 연계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전국 실업탁구단, 영광군에서 스토브리그 돌입

2026시즌 대비 전력 점검 열기 후끈, 지역경제 활력 기대

영광군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 실업탁구단 11개 팀, 200여 명의 선수단 및 관계자가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2026시즌을 대비한 스토브리그

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스토브리그는 시즌 개막 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팀 간 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이다. 참가 선수단은 팀별

맞대결과 전술 훈련, 체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며 조직력을 다지고 있다. 전국 실업 강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치면서 현장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는 쾌적한 실내 환경과 편리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훈련 기간 동안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숙박·음식점 이용이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실업탁구단이 영광군을 찾아 스토브리그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지속적인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